

##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작가’의 시기별 개념 변화와 그 의미 : 출판시장의 확대와 철학자, 문인 그리고 작가들\*

정 해 수  
(목원대학교)

### ◆ 국문초록

이 글은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작가’의 시기별 개념 변화와 그 의미 - 1.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18세기 문학장의 기원」의 후속 논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출판시장이 확대된 이후 17세기 말엽의 문학장의 변화를 고찰했다. 특히 현대철학자들과 교수직을 가진 전통 철학자들 간에 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다툼의 양상이 이 글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독자층의 형성으로 인해 전통 철학자들도 독자들의 기대지평에 민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몇몇 전기 작품도 이 글의 관심사항이었다. 17세기 말 갑자기 예전과 달리 철학자나 작가가 전기 작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영웅, 즉 위대한 철학자 또는 위대한 작가의 도래를 희구했고, 이러한 희망이 전기 작품의 출판으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저자, 작가, 철학자 등에 대한 개념변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철학자/작가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주제어 : 17세기 출판시장, 17세기 문학장, 18세기 문학장, 17세기 문인, 18세기 철학자/작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NRF-2013S1A5A8023449).

## 1. 들어가면서

17세기 문인들은 사회적으로 18세기 문인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전주의시대의 문인들은 저작권료, 즉 인세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좇는 유력인사들을 위해 “정치선전가”나 비서 또는 가정교사 등의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아카데미 프랑세즈와 같은 공적 기관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 봉급 또는 연금을 받았다. 말레르브(Malherbe), 공보(Gombauld), 부아로베르(Boisrobert), 콩라르(Conrart), 레르미트(L'Hermite), 부아튀르(Voiture), 보줄라(Vaugelas), 뒤리에(Du Ryer), 게즈 드발자크, 생타망(Saint-Amant), 코르네유, 로트루(Rotrou), 생소롤랭(Saint-Sorlin), 샤플랭 등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왕실, 귀족 또는 고위 관리들의 후원을 받고 “후견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 선전 활동이든, 궁정 축제에 동원되든 또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비방문을 작성”하여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리슐리외의 같은 실력자들과의 친분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창설에 참여하여 회원이 되거나 상서국(chancellerie)과 같은 공적 조직에서 출판의 허가와 검열과 같은 공무를 수행했다. 17세기 문인들은 직업적인 문필가라기보다는 문학적 재능으로 권력의 주변을 맴돌고 유력인사의 후원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18세기 초부터 이러한 종속적인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문인들 가운데 권력자에 예속되어 후원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글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다. 그들은 이전 세기의 문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출판시장에 내놓았고 출판업자들은 이 작품을 독자들에게 판매했다. 비록 문인들이 자신의 원고를 헐값에 출판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영국의 앤(Anne) 여왕이 1710년 저작권과 관련한 법령을 공포한 이래 작가들은 점점 더 많은 액수의 원고료를 챙기기 시작했다.<sup>1)</sup> 저작권이 인정됨에 따라 오랫동안 저작의 출판과 유통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저자는 출판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아가게 된 것이다. 디드로가 『백과전서』 출판인이었던 르 브르통의 부탁을 받아 도서출판행정총감인 사

1) 퀴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공저, 『책의 탄생』, 강주현, 배영란 옮김, 돌베개, 2014, 282-293쪽 참조.

르틴에게 보낸 『서적상의 거래에 대한 편지』는 출판시장에서 저자의 몫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디드로는 『편지』에서 특허제도를 옹호하고 해적판의 규제를 주장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한 출판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뿐만 아니라 “저자야말로 자기 책의 주인이며 사회의 그 누구도 그의 재산의 주인이 아님”을 역설했다.<sup>2)</sup> 디드로의 이 같은 주장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출판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한 18세기 초반부터 저자들이 문학장에서 문화변동을 주도한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이혜령은 18세기 문학장(champ littéraire)이 관직 등용과 아카데미 또는 어용 간행물의 편집진 자리 제공 등과 같은 국가적 후원에 좌우되었음을 주장했다.<sup>3)</sup> 절대왕정시대에 문화적 통일을 도모했던 국가가 후원과 검열을 통해 문학장을 지배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문학장이 귀족이나 국가의 후원에 종속되었던 바와 달리 18세기의 그것이 자율성을 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후원으로부터 벗어난 또는 소외된 작가들과 이들이 작업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출판사들이 있었다.<sup>4)</sup> 에릭 월테르는 18세기의 문화적 비약은 문맹률의 저하와 접근할 수 없었던 지식의 유포에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18세기 문학장은 출판시장, 국가에 의한 검열 그리고 지식권력 등과의 복합적 역학관계의 결과로 파악했다.<sup>5)</sup> 여기에서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출판시장이었다. 직업작가들과 출판시장은 문학장이 자율성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업작가의 등장은 문학 및 지식의 생산과 전파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이끌며 문학장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책과 독서의 역사를 천착해온 사

2) 이충훈, 「18세기 프랑스에서 “철학서적”의 제작과 유통의 양상」, 『서강인문논총』 제 29집, 2010, 305쪽에서 재인용.

3) 이혜령, 「18세기 프랑스 문인연구를 위한 논쟁과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 37집, 2004, 458쪽 참조.

4) 당연한 이야기라 될 수도 있겠으나 신종락은 출판사가 직업작가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종락, 「18세기 독일출판시장의 형성과 작가, 출판가, 독자의 등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0-3 참조.

5) Éric Walter, “Les auteurs et le champ littéraire”, *Histoire de l'édition française* Vol.2(Dir. Roger Chartier, Promodis, 1982, 390-391 참조.

르티에는 18세기 초부터 1780년대 사이에 출판된 서적의 수요가 3-4배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sup>6)</sup> 성직자, 귀족, 법관, 부르주와 계층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독자층 이외에도 책과 거리가 멀었던 하층 계급인 하인들까지 책을 보유했다는 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책을 보유하고자 했다.<sup>7)</sup> 책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1760년 이후 독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정 액수의 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독서방(Cabinets de lecture)”이나 “책 대여점(boutiques et étals de loueurs de livres)” 등도 속속 생겨났다.<sup>8)</sup> 특히 대여점은 종종 하루 단위로, 인기 있는 작품의 경우는 책을 분리하여 시간 단위로 책을 대여할 만큼 “계절스럽게 탐독”하는 이용객이 많았다. 18세기는 독서 열풍의 시대였던 것이다.

폭발적인 책의 수요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질서 아래 출판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야기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출판시장이 이미 매우 역동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은 단턴의 여러 연구 성과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제네바 뇌샤텔 출판사의 거래명세서, 회계장부, 고객과 주고받은 서신 5만 여건 등 방대한 사료를 25년에 걸쳐 조사·분석하여 대혁명 이전 프랑스의 도서 유통 과정을 추적했다. 뇌샤텔 출판사에 관한 단턴의 연구는 당시 출판시장의 핵심인 출판사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비록 한 출판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였으나 단턴은 작가로부터, 출판업자, 인쇄업자, 운송업자, 서적판매상 그리고 독자까지 이어주는 18세기 책의 유통경로와 각 행위자들 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sup>9)</sup> 상세히 재현한 것이다.

6) 로제 사르티에,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 백인호 옮김, 일월서각, 1999, 142쪽.

7) 사르티에는 독서층의 책장 규모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층은 1-20권을 비치할 수 있는 선반에서 20-100권을 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성직자들은 20-50권을 놓을 수 있는 100-300권을 놓을 수 있는 책장으로, 귀족이나 법관들도 1-20권을 놓을 수 있는 선반에서 300권 이상 놓을 수 있는 책장으로 교체했다. *Ibid.*, pp.111-112.

8) *Ibid.*, 112-113쪽.

9) 로버트 단턴, 『문화사 읽기』, 김지혜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152-167쪽 참조.

결국 샤프티에나 단턴의 일련의 연구는 유력자나 국가의 후원에 종속되었던 이전 세기의 문학장과는 달리 18세기의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문학장의 일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출판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18세기적인 지식인, 즉 철학자/작가의 출현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알랭 비알라도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펴낸다는 것은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차별성을 부여받는 일이다.<sup>10)</sup> 더구나 책이 프랑스문화를 지배하는 권능을 지녔던 18세기에<sup>11)</sup> 공적, 사적 후원으로부터 자유롭고 재능 있는 저자들이 스스로 문화를 주도한다는 의식을 지녔다고 추론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선행연구에서 18세기 문학장의 기원이 되는 17세기 문학장을 고찰했다.<sup>12)</sup> 이 글에서는 선행 논문의 흐름을 이어 받아 출판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변화한 18세기 초반의 문학장의 몇몇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판시장이 활성화한 시기와 그 이전 시기의 문학장은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출판사, 서적상, 직업작가들의 활동상 등을 추적할 것은 아니다. 이 글이 추구하는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출판시장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18세기 지식인들의 모범이 되는 철학자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몇몇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책을 통해 철학 영역을 잠식하려는 새로운 철학자들과 전통적 철학을 지키려는 교수직을 가진 철학자들의 딜레마가 겹쳐져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된 두 진영 간의 영역 다툼은 우리가 먼저 고찰할 내용이다. 이를 통해 17세기 후반 철학자란 칭호가 고정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몇몇 전기 작가의 전기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10) Alain Viala, *Naissance de l'écrivain.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à l'âge classique*, Les éditions de Minuit, 1985, p.241.

11) "Ainsi le livre est-il roi, régissant partout en maître, volontiers arrogant, se substituant partout à la parole." Voir Jean M. Goulemot/Daniel Oster, *Gens de Lettres. Écrivains et Bohèmes*, Minerve, 1992, p.51.

12) 정해수,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작가'의 시기별 개념 변화와 그 의미 - 1.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18세기 문학장의 기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0집, 2015.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출판시장에서 갑자기 철학자 또는 문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성인 또는 역사적 위인들이 전기 작품에서 주로 다뤄진 반면 계몽주의 시대 직전부터 18세기 중엽 이후까지 철학자와 문인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은 분명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면밀히 고찰하고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기별로 대두된 다양한 지식인의 명칭과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 II. 출판시장을 둘러싼 철학자와 문인의 다름

우리는 앞선 연구에서 17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출판된 여러 사전의 표제어 ‘철학자’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철학자’는 일관된 함의를 지닌 단어가 아니고 시기별로 의미의 차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밝혔다.<sup>13)</sup> 즉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자연의 원리와 도덕적 도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치를 따지는 현자라는 뜻풀이를 기본 개념으로 채택한 가운데, 각 사전은 철학자를 제도권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지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식을 수단으로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는 사람으로 또는 비도덕적이고 반종교적인 지식인을 가리킬 때 등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의미로 기술했음을 말한다. 스스로 지식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철학자임을 자임했던 남들을 비하하기 위해 철학자로 표현했던 ‘철학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것이다. 『백과전서』에서 뒤마르세가 정의한 ‘철학자’를 우리가 일상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모든 시대에 걸쳐 - 계몽주의 시대에서조차 -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17세기에는 일정 수준의 학식을 갖춘 지식인들이라면 예수회 철

13) *Ibid.*, 2장 ‘철학자’: 사전적 정의의 어려움 참조.

14) 17세기 이후 오늘날의 지식인(intellectuels)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된 말은 ‘문인(gens de lettres)’으로서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다. 당시의 문인에는 문학자(littérateur), 교양인(savant), 철학자(philosophe), 정기간행물 기자(publiciste) 등이 포함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ul Bénichou, *Le Sacre de l'écrivain*, Gallimard, 1985, 23쪽 참조.

학교수든, 데카르트를 신봉하는 법률가든, 에피쿠로스적 재사든, 백과전서 파든 또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지식인들은 모두 철학자를 자임했고 그렇게 불리길 원했다.<sup>15)</sup> 계몽주의 시대에도 '철학자'란 당시의 지식인을 뭉뚱그려 표현한 단어일 뿐 모두가 뒤마르세의 '철학자'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각자의 지향점도 서로 달랐음에도 서로 '철학자'를 칭했으며 심지어 이들 철학자들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던 지식인들도 스스로 '철학자'로 인식했다.

지식인들이 서로 철학자임을 칭했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자임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눈여겨보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철학자로 불리고 싶어 했고 철학자를 칭했을까? 단순히 사전적 의미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현자'의 이미지를 취하기 위해서였을까? 17-18세기에 걸쳐 '철학자'의 위상을 얻기 위해 지식인들은 왜 그토록 노심초사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앞서 언급한 사전들에서 또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 사전의 표제어 '철학자' 또는 '철학'은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1690년 출판된 『퓌르티에르 사전』에 기술된 몇몇 문장은 당시의 문화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사전에서는 여러 부류의 철학자들을 나열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논리학, 윤리, 자연과학 형이상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기독교 철학자들을 말하는데 집필자는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철학자들을 포함시켰다. 표제어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에 기술된 내용이지만 분명 현대 철학 또는 현대 철학자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신구문학논쟁을 요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음 문장은 이미 치열한 논쟁을 거친 후 현대 철학자들이 기득권층 철학자들을 제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La Philosophie moderne l'a bien emporté sur la Greque. 오늘날의 철학은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을 이미 능가했다.<sup>16)</sup>

15) Dinah Ribard, "Philosophe ou écrivain? Problème de délimitation entre histoire littéraire et histoire de la philosophie en France, 1650-1850",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55e année, N. 2. 2000, p.358.

물론 여기에서 현대 철학자들이란 데카르트를 비롯한 가센디와 같은 데카르트주의자들을 말한다.<sup>17)</sup> 다소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732년 출판된 『리슐레 사전』의 표제어 「철학자」에 데카르트, 가센디, 말브랑슈 등을 위대한 철학자로 언급한 사실에서 『퓌르티에르 사전』이 밝힌 현대철학, 또는 현대철학자들이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선구자들, 즉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의 정신을 계승한 자유사상가들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능가했다고 한 대상은 이들에 앞서 설명된 고대 철학 및 기독교적 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거나 학문적 탐구를 하는 기독교층 철학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수직을 가졌던 철학자들, 기독교 교단의 이론적 논리를 제공했던 철학자/신학자들로 대표되는 기존 문화장의 주역들을 현대철학자들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에서 하나씩 무력화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퓌르티에르 사전』의 표제어 「철학자」와 「철학」은 사전적 의미 이외에 기독교층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 간에 치열한 다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진영 간의 대립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노선의 차이에만 기인하는 것일까? 이해령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l'habitus)개념을 “지속적이면서 다른 것으로 전이될 수 있는 성향의 체계로서 구조화된 구조이며, 또한 구조화하는 구조처럼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문인들을 일정한 아비투스에 입각한 문학영역 혹은 문학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바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인들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인 상상의 장, 이를테면 문학적 규범과 저술행위, 취향과 관련된 규범, 독자의 기대 수준 등으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틀 뿐만 아니라, 책시장, 국가기구 등의 물리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인들의 위상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런 의미에서 출판시

16) *Dictionnaire universel* en 3 tomes, Recueilli & compilé par Antoine Furetière, A. et R. Leers, La Haye, 1690. 인용된 사전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 가능함. 다른 서지 사항도 Gallica의 자료를 참조했음.

17) “Descartes est le plus grand Philosophe qu’il y ait eu. Gassendi l’a suivi de près, mais ses principes sont très différents. Le Pere Malebranche de l’Oratoire est aussi un grand Philosophe.”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ancienne et moderne* de Pierre Richelet, Amsterdame, 1732, Tome seconde, p.388.

장의 확대가 새로운 지식층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고, 교육기관 등에서 전통적이고 직업적인 철학자들과 유력인사들의 후원을 받는 문인들이 주도하던 문화장에 서서히 등장하여 기득권층의 영역을 잠식하고, 더 나아가 직업적 영역까지 쟁취했다는 사실은 '철학자/작가'의 시기별 개념 변화와 그 의미를 밝히려는 이 글에서 흥미롭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뤼시앵 페브르도 정확히 지적했듯이 책은 서구사회가 중세의 미망에서 벗어나 근대사회로 넘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로운 발명품"이었다.<sup>19)</sup> 말하자면 이 발명품을 무기삼아 근대사회의 첨병인 새로운 지식인들이 시대의 총아로 전면에서 나서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기득권 집단은 서서히 문화 권력을 잃어갔던 것이다. 문화 권력이 재편되는 시기에 지식인들은 각자 진정한 철학자임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판했다. 철학자/작가의 개념이 서서히 정립되어갔던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으나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된 것은 물론이다.

이 글과 관련하여 디나르느 출판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된 17세기 중엽부터의 문화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문화장을 천착한 그녀는<sup>20)</sup> 책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된 이후 나타난 지식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주장이 특히 흥미를 끄는 이유는 비알라와 같은 기존의 문학사회학자들이 사회계급 간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이데올로기 이외에도 각 계층 간의 대립은 구체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철학자의 지위 또는 철학자/작가라는 직업적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두 철학적 계열의 구체적인 투쟁에 주목했다. 즉 교수직을 가진 철학자들이 한 축을, 교수직을 가지지 않은 철학자들이 또 다른 축으로 나뉘어 전개된 철학

18) 이해령, 「18세기 프랑스 문인연구를 위한 논쟁과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 37집, 2004, p.448.

19) 뤼시앵 페브르·앙리 장 마르탱, 앞의 책, 「서문」.

20) 리바르에 앞서 알랭 비알라(Alain Viala)는 *Naissance de l'écrivain*(1985)에서 폴 베니슈(Paul Bénichou)는 *Le sacre de l'écrivain*(1985) 등의 저서를 써서 한편으로는 직업적 작가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담당하고 있는 세속에서의 성직자적 지위 등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이들의 저서에 디나르르에서도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논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적 대립 양상이 앞서 언급한 사전들의 표제어 ‘철학자’의 숨겨진 의미이며, 따라서 당시 문학장의 쟁점이라는 것이다.<sup>21)</sup>

전통을 고수하는 각종 제도권 학교의 교수들이 자신들처럼 안정된 직업은 없으나 책이라는 새로운 소통 수단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독자층에게 전파하여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한 책의 저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느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교수직을 가진 철학자들은 여러모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이 등장한 지식인들이 특히 철학의 영역에서 식자층을 설득력 있게 공략하면서 점차 지식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교육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직업이나 변변한 사회적 지위가 없었던 새로운 철학자들이 속속 직업적인 작가로 변신하는 것은 전통적인 철학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식자층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지식인들이 마련한 책을 매개로 한 논의의 장에서 그들과 대립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 불리한 조건에서 논쟁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립적 논쟁이 책의 저자가 표면적으로라도 철학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대한 항구적인 재설정(redéfinition)을 요구하게 되는데, 차후에 전통적인 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출판시장의 팽창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환경이 전통적 철학자들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들로서는 철학과 관련이 적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철학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들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1650년부터 대혁명 직전까지 철학교재의 출판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철학 교육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강의내용 모두를 책으로 잔뜩 제작했던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sup>23)</sup> 그러나 그들이 만든 책이라는 것은 강의록을 엮어 만든 것, 즉 구술된 책(livre dicté) 책이므로<sup>24)</sup>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판한다

21) “Ces luttes, comme le montrent ces dictionnaires, mettent en place des pôles qui se définissent mutuellement et servent de référence pour le classement des philosophes : d’un côté le pôle professionnel-professoral, de l’autre le pôle non professoral...”, Dinah Ribard, *op.cit.*, p.361.

22) *Ibid.*, p.365.

23) *Ibid.*

면 구술성을<sup>25)</sup> 상실하기에 한편으로는 학교의 철학교재로서 가치가 떨어지며, 또 한편으로는 교재 같은 철학서는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교직에 있는 철학자들은 출판시장에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당연히 철학과 그다지 관련이 없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철학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학생들을 위한 철학교재를 쓰는 것과 학교 밖 식자층의 다양한 기대지평을 충족하는 철학서를 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제도권 철학자들의 책은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문해력과 지식욕이 있는 일반 독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뒀고, 이러한 성공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던 교직을 가진 철학자들을 더욱 압박했다. 특히 로네(Gilles de Launay), 라그랑주(P. La Grange) 그리고 레클라슈(Lesclache) 등은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된 교재용 철학서를 썼다.<sup>26)</sup> 물론 이 철학서들은 중등교육이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식자층을 위한 용도로 집필되었기에 라틴어로 철학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철학서의 출판은 재야의 비교수직 철학자들의 저작활동으로 인해 제도권 철학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스콜라철학자들을 비롯한 전통적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주시하고 있었고,<sup>27)</sup> '새로운 철학'이 일반대중

24) *Ibid.*, p.366.

25) 굴르모는 리바르와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 그는 출판시장이 팽창하기 전인 17세기에는 여전히 문화적 구술성(oralité)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농가의 저녁 시간에서부터 살롱의 대화까지 18세기에도 여전히 말이 글보다 우세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an Marie Goulemot,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4쪽 참조.

26) Dinah Ribard, *op.cit.*, p.366.

27) 알베르 모노는 자신의 주저 *De Pascal à Chateaubriand*에서 1670년부터 1802년까지 계몽철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한 전통적 철학자들의 반격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서문 앞쪽의 그래프는 전통적 철학자들의 저작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피에르 벨의 책이 출판된 1705년부터 새로운 철학을 비판하는 책의 출판이 점증하다가 『백과전서』의 출판과 루소의 『에밀』이 출판되어 식자층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1745년부터 1780년까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Albert Monod, *De Pascal à Chateaubriand*, Félix Alcan, 1916 참조.

에 확산하자 이를 저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터였다. 이렇게 볼 때 제도권 철학자들이 일반 대중을 위한 철학서를 펴낸 것은 자신들의 전통적 철학이 지닌 고루함을 걷어내고 새롭게 단장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 새로운 철학자들이란 궤변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신들이야말로 사회 규범의 수호자라는 것을 부각하여 ‘새로운 철학’의 범람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통 철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진정한 철학자를 가리기 위한 논쟁의 의미가 다소 퇴색하고 이제부터는 출판시장에서 독자의 호응이 철학자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와 거리가 있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정기간행물 『가제트 Gazette』지가 1631년 창간된 이래 1750년 기준 80여종의 정기간행물이(대혁명 직전 200종)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는 사실도<sup>28)</sup> 철학적 논쟁의 장이 다양화 되었다는 것과<sup>29)</sup> 철학적 논쟁에서 일반 독자의 몫이 확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출판업자들과 정기간행물 편집인들 가운데 독자 및 구독자들의 관심과 취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출판과 유통, 즉 저자에서부터 독자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독자는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8세기에도 50만의 잠재독자와 5만의 적극적인 독자가 책의 성공을 좌지우지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30)</sup>

전통적 철학자가 되었든 새로운 철학자가 되었든 책의 저자가 되거나 정기간행물의 필진이 되는 것은 이제 철학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책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종종 철학자임을 공인받는 관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직이나 교수로 직행하는 통로이기

28) Michèle Duchet, “La presse périodique, journaux et gazette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Vol.5 1715-1794, Éditions sociales, 1975, p.266.

29) 다니엘 모르네는 18세기에 발간된 정기간행물은 현안에 대한 모든 주제, 특히 계몽사상가들의 철학, 정치, 경제, 문학적 의견에 대한 전반적일 검토뿐만 아니라 신학과 종교까지 다뤘음을 밝혔다. 계몽사상에 대해 특히 적대적이었던 『안네 리테레르』와 『아피슈 드 프로뱅스』는 백과전서파의 철학에 대해 공공연한 싸움을 벌였음을 적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모르네,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주명철 옮김), 민음사, 1993, 429-436쪽 참조.

30) Jean Golzink, *XVIIIe siècle*, Bordas, 1988. p.23.

도 했다. 우리는 이미 17세기 프랑스 문인들이 각종 문학 활동을 통해 공적 후원과 사적 후원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밝혔다.<sup>31)</sup> 문필로 명성을 얻은 문인들이 왕실, 귀족 그리고 고위관리들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아카데미 회원이 된다든지, 또는 국왕 비서관, 재상의 고문관, 출판 허가와 검열관 등의 다양한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 지역의 크리스토프 마르틴 빌란트의 성공담 역시 지역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인이 문필활동을 통해 작가로서 또는 철학자로서 공인을 받고 직업을 구하는 예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경건주의에 심취하여 종교적인 서사시를 쓰기도한 빌란트는 향락주의로 전환하고 자신의 체험을 담은 고백서 『아가톤 이야기 Die Geschichte des Agathon』와 『무자리온 Musarion』을 썼다.” 이 작품들 이전에도 여러 문학작품들의 성공에 힘입어 그가 고향인 비버라흐를 떠나 대처로 향할 때, “독일의 주요작가로 그의 명성은 이미 마인츠에도 자자했다.” 그의 문학적 성공은 그에게 고향 소재 관청의 국장의 자리를 제공했고, 1769년에는 에어프르트(Erfurt)에서 철학교수가 되도록 만들었다.<sup>32)</sup> 게다가 바이마르의 공비 아말리아는 그를 궁정고문관으로 채용하고, 그녀의 아들인 카를 아우구스트의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문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문 영광을 누린 작가 빌란트의 예를 통해 책의 저자가 된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철학자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부를 획득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독일 지역을 넘어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출판 세계의 한 축으로 등장한 일반 독자들, 전통적 철학자들의 일반 독자들에게 대한 관심, 야망을 가진 젊은 작가와 철학자들의 성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출판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문학장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철학자, 문인들의 공인화 과정은 이제 공적·사적 후원이라는 형식보다는 출판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책을 둘러싼 세계에서 한편으로는 책의 저자로서 일반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파악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독자로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훌륭한

31) 정해수, 앞의 논문, pp.96-104.

32) 빌란트에 관한 내용은 신종락, 「18세기 독일문학시장의 작가, 출판인 그리고 독자」, 『독일문학』, Vol.112, 2009 참조.

한 책을 찾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페늘롱의 『텔레마크』가 73개 판, 볼테르의 콩트 『칸디드』가 29개 판, 루소의 『신 엘로이즈』가 30여개 판, 엘베시우스의 『정신론』이 11개 판이 확인되었다는 것은<sup>33)</sup> 독자와 저자 간에는 서로의 기대 수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충족시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18세기에 와서 인쇄물이 문학장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모든 일들이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독서의 시대인 18세기에 책이 없는 계몽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 Ⅲ. 철학자에 대한 전기(biographie)로부터 피에르 벨르를 공인화하기

17세기부터 책의 저자(auteur)는 문학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는 이미 한 사회에서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알랭 비알라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저자란 무언가를 창작(창조)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sup>34)</sup> 즉 저자란 독창성을 지닌 우월한 지위를 실현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권능은 누구나 차지할 수 있었다. 교회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 법률가들, 아카데미 회원들, 문인들 등 지식사회의 주축이 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교육기관의 철학교수들이 주로 책의 저자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책 쓰는 일에 매달렸다.<sup>35)</sup> 그러나 글을 써서 책을 출판하더라도

33) 다니엘 모르네는 18세기에 출판된 화제작들에 대한 서지사항을 조사했다. 열거한 작품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의 판본을 조사했으나 어려움을 호소한다. 예를 들어 『칸디드』는 29개 판이 있다고 하지만 해적판까지 포함하면 43개 판, 『신 엘로이즈』는 실제로 70개 판 이상(1789년 이전 기준)이 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판본이 많다고 하여 발행부수가 꼭 많은 것은 아니었다. 500권에서 4000부까지 판본에 따라 발행부수가 달랐다. 이런 이유로 73개 판을 가진 『텔레마크』의 전체 발행부수는 40년간 발행된 『신 엘로이즈』의 전체 발행부수보다 많지 않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모르네, 앞의 책, 181-184쪽 참조.

34) Alain Viala, *op.cit.*, p.276.

35) 빌란트는 바이마르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아무나 글을 써서 명예와 부를 좇아 책을 쓰려하는 세태를 통렬히 비판했다: “누구나 책을 쓴다. 수업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어느 때가 되었든 500여명의 저자가 활동했으나<sup>36)</sup> 큰 성공을 거둔 저자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적인 생활을 움직이고 규정하는 학교기관, 출판사, 연극 극장 등과 같은 지식 사회의 중심은 언제나 책의 저자들이었다.<sup>37)</sup> 이미 라신, 몰리에르와 같은 문학가들의 연극공연은 궁정에서 언제나 대화의 주제였고, 많은 문학작품이 궁정의 일상을 세련되게 만든 터였다.<sup>38)</sup>

흥미로운 사실은 철학적 주제가든 문학적 주제가든 책을 쓰는 일단의 작가들 가운데 정신과 학문이 귀족의 혈통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쓰는 자체를 신화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굴르모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썼다.

Écrivez! écrivez! il en restera toujours quelque chose. Vous survivrez dans la mémoire des hommes. 글을 쓰시오! 글을, 글이란 언제나 무언가를 남긴다오. 후대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란 말이오.<sup>39)</sup>

폴 베니슈는 프랑스가 근대사회에 진입하면서 중세적 종교관과 우주관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교회와 성직자가 차지했던 절대적인 지위가 “문학이라는 성직자적 지위”로 대체되어 작가가 사회를 변혁하는 주체가 된 것이 18세기적 문학장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전에는 없었던 세속의 투쟁적 철학과 문학이 기독교 교리를 무력화하고 절대주의 권력에 타격을 입히면서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결국 철학과 문학은 이미 신뢰를 상실한 종교를 밀어내고<sup>40)</sup> 그 자리에 종교의 지위에 버금가는

---

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학식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선행, 학생과 도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무능한자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자가 책을 쓴다.” 신종락, 앞의 논문, 4쪽에서 재인용.

36) 비알라는 17세기 중반에 발간된 P. Louis Jacob의 *Bibliographia parisiana et Bibliographia galliae*에서 조사한 저자들의 수와 로버트 단턴이 추려낸 1750년대 저자들의 수를 비교하여 1650년경이나 1750년경 사이에 평균적으로 500여명의 저자들이 활동했다고 추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lain Viala, *op.cit.*, pp.240-241 참조.

37) *Ibid.*, p.242.

38) Jean M. Goulemot/Daniel Oster, *op.cit.*, p.21.

39) *Ibid.*, p.53.

문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볼테르와 루소의 예는 베니슈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볼테르가 만년에 페르네 영지에 정착했을 때 유럽의 거물급 인사들,<sup>41)</sup> 문인, 부르주아, 열광적인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방문하고 만나려고 안달했다는 사실, 그가 1778년 파리에 귀환할 때 도중의 여러 도시에서 많은 인파가 그를 보려고 몰려들고 파리에서는 세관원들이 황송해하며 예를 갖추고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작품을 공연하여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사실 등은 “왕 볼테르”를 넘어 “신 볼테르”나 다름없지 않는가? 볼테르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전 유럽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루소도 사후에 신격화되었다. 고독 속에서 갑자기 사망한, 그래서 더욱 장엄하게 여겨진 그의 사후, 마치 선지자처럼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있는 에르므농빌의 작은 섬에 1780년 “이미 프랑스인의 절반이 방문했다.” 누구나 그에 대한 “추억과 황홀경과 열광과 계몽사상에 물들고 싶어” 루소에게 바쳐진 이 섬을 찾았던 것이다. “왕비와 궁정의 모든 왕자와 공주들이 직접 그곳에 납시어” 이 포플러 섬에서 한 시간 이상을 머무르다 돌아간 사실, 영국인들이 “성지를 밟아 보기 위해” 물에 뛰어들고, 어떤 사람은 장 자크의 근처에서 죽기 위해 호숫가에서 자살했던 사실 등에서는 추앙하는 성인이 잠들어 있는 성지를 찾아 나선 신앙심 깊은 신자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새로운 종교, “계몽철학자들이 구축하려했던 이성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sup>42)</sup>가 1780년경 완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란 위대한 볼테르와 루소가 장엄하고 숭고하게 사망했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자를 지식인의 표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개인의 역사, 즉 전기였다. 역사서를 집필하는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던 17세기에<sup>43)</sup> 세기 말엽부터 갑자기 주요 철학자들의 철학적 근

40) Paul Bénichou, *op.cit.*, p.17.

41) 페르네에는 리슐리외 원수, 팔라틴 선제후, 뷔르템베르크 공작, 빌라르 공작, 달랑베르, 튀르고, 모르레, 부플레르, 쉬아르 부인, 샤바농, 영국인 설록과 무어 등 무수한 유명 인사들의 순례가 이어졌다. 이 문단은 다니엘 모르네의 앞의 책, 287-294쪽을 토대로 작성됨.

42) Jean M. Goulemot/Daniel Oster, *op.cit.*, p.53.

간이나 일생을 다룬 개인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분히 모종의 목적성을 띤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전부터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 또는 성인에 대한 전기가 출간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전이라면 전혀 다뤄지지 않았을 철학자, 문인들이 갑자기 전기의 대상이 되었기에 흥미로운 일이다.

초기의 전기 서술방식은 매우 조악했다. 로랑 보르들롱의 『철학연구』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 작품은 고대그리스와 로마, 갈릴레이나 데카르트 그리고 가센디와 같은 근대 철학자들을 화자로 등장시킨 '대화' 장르에 속한다. 그러니까 5-8쪽으로 이루어진 각 대화편 말미에 대화에 참여한 철학자에 대해 2쪽 분량에 걸쳐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보르들롱의 전기 서술방식이었다.<sup>44)</sup> 대부분의 화자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철학자였고 근대 철학자는 손에 꼽을 정도여서 다소 진부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보르들롱은 당시 정기간행물 *Mercur galant*에 깊숙이 관련된 작가이기에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한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알 수 있다는 것과 독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철학자인지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sup>45)</sup> 한 시대가 추구해야 할 철학자상이 조금씩 윤곽을 잡아 감과 동시에 이러한 철학자상이 독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46)</sup>

보르들롱이 철학자들의 대화에 뒤이어 간략한 전기를 씌으로써 독자들에게 철학자들의 사유하는 방식과 인간상을 보여주었다면, 『데카르트 전기』

43) 생테브르몽은 동시대 역사가들의 보잘 것 없는 재능을 한탄하곤 했다. “Il faut avouer que la plupart de nos historiens n’ont eu qu’une mérite médiocre et, sans l’envie naturelle qu’ont les hommes de savoir ce qui s’est passé dans leur pays, je ne sais comment une personne qui a le bon goût des histoires anciennes, pourrait se résoudre à souffrir l’ennui que donnent les nôtres.” J. R. Armogathe, “Les historiens françai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Vol.4 1660-1715, Éditions sociale, 1975, 323쪽에서 재인용.

44) Laurent Bordelon, *Théâtre philosophique*, Barbin & Musier, 1692. 이 작품은 프랑스 국립전자 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음.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6259484x/>

45) Dinah Ribard, *op.cit.*, p.374.

46) 보르들롱의 작품은 바로 이런 점에서 17세기의 개인의 역사를 다룬 다양한 책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를 쓴 바이에는 철학자도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

Par cet endroit, sa vie a des rapports & des liaisons très étroites avec l'histoire générale des Sciences, comme la vie d'un Pape ou d'un Roy en pourroit avoir avec l'histoire Ecclésiastique ou Civile. 이러한 측면에서 교황이 교회사와, 왕이 일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삶은 학문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47)</sup>

이 인용문을 더 자세히 되짚어보면 데카르트는 마치 철학의 왕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바이에는 철학의 왕 데카르트의 대관식을 위해 헌사로 『데카르트 전기』를 썼다는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노 당디이(Arnauld d'Andilly)와 에르망(Godefroi Hermant)이 집필한 『성인전 Vies des Saints』이나 르냉(Le Nain de Tillemont)의 『생토귀스탱 전기 Vie de saint Augustin』와 같이 한 인물을 신화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기와는 궤를 달리한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저자의 관심은 숨겨진 보물, 즉 데카르트의 내면과 인간적인 결함까지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전기 기술 태도는 사후 4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거의 동시대 인물을 다루는 태도 있겠으나 친근한 이웃과도 같은 지식인의 표상으로서의 데카르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철학자의 지혜와 미덕”이기 때문이다.<sup>48)</sup> 리바르가 『데카르트 전기』에서 주목한 것은 저자가 데카르트와 그의 경쟁자들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에 대한 생각을 널리 확산할 당시 데카르트와 그가 접촉했거나 교유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누가 궤변가이고 잘못된 사람인지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철학자 데카르트를 전형화 했다는 것이다.<sup>49)</sup> 바이에의 이러한 전략적 전기 서술 방식은 80여년이 지나서 시집 『사계

47) Adrien Baillet, *Vie de Monsieur Descartes*, Paris, Horthemels, 1692, Préface, p.v. 원문의 글을 그대로 옮겼음. 이 작품은 프랑스 국립전자 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음.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75559n/>

48) *Ibid.*, p.v-vii.

49) Dinah Ribard, *op.cit.*, p.375.

Saisons』로 유명한 생 랑베르의 *Essai sur la vie et les ouvrages d'Helvétius* (엘베시우스의 일생과 작품에 대한 시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2쪽에 지나지 않지만 이 전기의 서문은<sup>50)</sup> 바이에의 전기서술 방식과 동일하다. 생 랑베르는 엘베시우스의 '행복론'을 예로 들며 많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자들이나 근대 프랑스 모럴리스트들이 행복과 관련한 글을 썼지만 모두 진정한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번뜩이는 기지로만 가득 찬 글을,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 편견으로 행복을 '하늘'에 윤패시키는 우를 범해왔다고 비판했다. 철학자들에 대한 이러한 폄훼는 생 랑베르의 주인공에 대한 숭상으로 이어진다. 생-랑베르가 언급한 모든 철학자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곧 엘베시우스의 사람됨과 철학을 돋보이게 한다. 그래서 엘베시우스는 기지가 아닌 진정한 철학, 즉 실용적이고 유용한 철학을 가지고 사후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 철학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진정한 철학자상의 표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기 작품이 노린 점이다.

보르들롱, 바이에 그리고 생 랑베르로 이어지는 전기 작가들의 일련의 글 쓰기는 무엇보다 출판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을 향한 것이기에

---

50) 《Le Bonheur, écrit Saint-Lambert, est l'objet de désirs de tous les hommes, & non pas de leurs réflexions. [...] Les Philosophes de l'antiquité s'occupaient beaucoup de cet objet important ; mais ils sont donné plus de phrases que d'idées. Il y a bien de l'esprit dans les Traités [...] de Sénèque, & très peu de Philosophie. Les Moralistes modernes, soumis à la superstition [...] ont fait la satire de la nature humaine, & non pas son histoire ; ils promettent de la peindre, & ils la défigent : ils exilent le bonheur dans le Ciel, & ne supposent pas qu'ils habite la terre [...] & dans les plus belles parties du monde la science du salut a été cultivé aux dépens de la science du Bonheur. Quelques Philosophes modernes on fait de petits Traités sur le Bonheur [...] Après ces tristes & vains raisonneurs, & d'autres dont nous ne parlerons pas, on doit entendre avec plaisir un vrai Philosophe, un homme aimable, aimé & heureux, parler du Bonheur ; & nous pensons que le Public ne verra pas sans intérêt le Poème que nous lui présentons, [...] Si le plan ne se trouve pas exactement rempli ; s'il y a des négligences dans les détails [...] ces défauts sont expiés par des beautés de la première classe. Les même défauts se trouvent dans le Poème de Lucrèce, rempli d'ailleurs d'une fausse philosophie ; & cependant ce Poème a franchi avec gloire le long espace de vingt siècles.》Dinah Ribard, *op.cit.*, p.376에서 재인용.

더욱 전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 랑베르는 서문에서 독자(여기에서는 public)들에게 독서의 의미와 방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이성에 기초한 현대철학, 더 나아가 계몽철학을 확산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닐까?

아무튼 출판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전기에 서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출판물에서 문인들 가운데 시대정신을 구현한 작가들,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길을 제시한 작가들이 속속 언급되고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sup>51)</sup> 이러한 현상은 문인들 사이에서 계층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훌륭한 저자들(bons auteurs)” 더 정확히 말해 “écrivains”은<sup>52)</sup> “중요한”<sup>53)</sup> 책들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미 단순하게 책을 펴내는 일반 저자들과 차별화된다. 비알라에 따르면 “중요한 작가”인 “écrivain”은 칭호 자체만으로도 엄선된 저자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며 사회적 유용성(utilité)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sup>54)</sup> 여기에서 유용성이라 함은 계몽주의가 추구했던 철학의 유용성과 맥락을 같이하며, 따라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세의 행복 추구, 생산성, 사회문제 등이 바로 18세기 철학이 추구했던 근본적인 문제로서 세 부적으로 종교적인 문제, 수도원, 귀족의 특권, 무위도식하는 승려들, 세상에 무용하게 태어난 귀족 등에 대한 비판 등은<sup>55)</sup> 이전의 철학자나 작가들이 다뤘던 주제들과 분명 다르다. “écrivain”의 글쓰기는 이런 의미에서 “유용

51)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은 1684년 피에르 벨르가 창간하고 편집한 『문필공화국 소식지 Nouvelles de la république des lettres』이란 제호의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신학 전문 비평지이다.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문필공화국 소식지』의 주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판된 책의 서평과 함께 저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52) Alain Viala, *op.cit.*, pp.245-246.

53) 리슐레 사전에서 정의한 “écrivain”은 “auteur qui a fait imprimer quelque livres considérables.”이다.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ancien et moderne*, de Pierre Richelet, T. 1er, p.572.

54) Alain Viala, *op.cit.*, p.279. “écrivain”이란 단어는 중요한 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의미를 포함하는 어휘가 우리말에는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작가’로 통일해서 쓰도록 한다.

55) Béatrice Didier, *Le siècle des Lumières*, MA Édition, 1987, p.394.

성”을 지니며 반대로 “유용성”을 지녀야 “*écrivain*”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시금석을 놓은 피에르 벨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저자가 사회적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판적 기능을 다하기를 원하는 지적 흐름이 있었다. 물론 벨르를 논할 때에는 계몽주의 철학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즐겨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sup>56)</sup> 그를 간편하게 사상사적 흐름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벨르의 지적 여정과 철학자적 면모,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18세기에 끊임없는 탐구의 대상이었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1748』, 볼테르의 『풍속에 관한 시론, 1756』, 레날(Raynal)의 『양(雨) 인도에 있어서의 유럽인의 식민지 및 통상의 철학적, 정치적 역사, 1772』, 콩도르세의 『인간정신 진보의 역사적 개관 초고(草稿), 1794』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계몽 사상가들의 책들은 랑송의 표현처럼 “병기고”같은 벨르에게서 “마음대로 무기를 골라잡듯이” 필요한 모든 주제를 취해 발전시킨 것이다.<sup>57)</sup> 한 세기에 걸친 계몽주의 시대의 논의의 대부분은 이미 벨르가 개진했던 주제들이었던 만큼<sup>58)</sup> 또한 그가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귀감(*parangon*)”<sup>59)</sup>이었던 만큼 18세기 프랑스를 논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철학자였다.

벨르가 계몽 사상가들의 전형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프랑스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주제인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이들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그는 이성에 기초한 특유의 추리술(*art de raisonner*)<sup>60)</sup>로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벨르는 “이성이란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것에 대해 반복할 수 없는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최고법원이다”<sup>61)</sup>라고 주장했다. 종교문제로 프랑스를 떠

56) Ibid., p.47.

57) 랑송 G./튀프로 P., 불문학사(상), 정기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7, p.377.

58) Jean Golzink, *op.cit.*, p.34.

59) Jean M. Goulemot/Daniel Oster, *op.cit.*, p.55.

60) 루소는 『에밀』에서 모든 판단이라는 것은 추리의 과정에 불과함을 강조하면서 “판단술과 추리술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루소, 『에밀』 (중), 오증자 옮김, 박영사, 81쪽.

61) 다니엘 모르네, 앞의 책, 43쪽에서 재인용.

나 생애 대부분을 로테르담에서 보내면서 자유로운 사유를 했던 그의 이성  
은 거침이 없었다.<sup>62)</sup> 모든 것은 전통, 편견 또는 권위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입각한 데카르트적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망명의 원인이  
되었던 종교문제, 그러나 금기시해야 할 종교문제조차도 철저한 추론의  
대상이었다.<sup>63)</sup> 그의 주장 가운데 가장 과감한 것은 종교와 도덕의 독립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가 들었던 예  
는 아주 명확했다. 단적으로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듯이, 성실한 삶을 꾸미는 자유사상가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스피노자처럼 상냥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절도  
있는 사람도 드물었다. 바로 그러한 스피노자도 무신론자였다.”<sup>64)</sup> 종교와  
도덕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곧 종교적 도덕을 파괴하고 사  
회적 도덕 체계를 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체계, 종교  
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체계를 세우는 것은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철학자 또는 작가가 홀연히  
나타나 전통과 편견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고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꿔버린 새로운 지식인상, 계몽철학자의 선구자를 접하고 있다.<sup>65)</sup>

#### IV.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는 출판시장이 팽창하기 전 프랑스 지식사회의 몇 가지 변화를 예로  
들어 문학장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 시기는 광범위하고도 전면

62) 피에르 벨르의 생애와 지적 여정에 대해서는 장세룡, 「피에르 벨의 정치사상 : 공화주의자에서 절대왕정 지지자로」, 『역사와 담론』 제51집, 2008 참조.

63) 이런 이유로 알베르 모노는 벨르를 “무신앙이 낳은 가장 가공할 투사”라고 평가했다. Albert Monod, *op.cit.*, p.144.

64) 폴 아자르, 『유럽 의식의 위기 I』, 조한경 옮김, 민음사, 1990, 63-65쪽.

65) 굴르모는 피에르 벨르와 데카르트가 공통적으로 망명지에서 자유로운 사유를 했던 점, 박해를 받았다는 점, 이성적 추리술을 존중한 점을 예로 들며 새로운 철학자상의 기본 요소로 권력에 대한 저항, 박해, 그리고 추리술을 들었다. Jean M. Goulemot, *op.cit.*, p.43.

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전으로서 샤프티에처럼 18세기 프랑스 왕국의 모든 계층이 책에 열광하고, 독서를 통해 철학자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여 결국 사회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sup>66)</sup>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등장한 교수직을 가지지 않은 현대철학자들과 교수직을 가진 전통 철학자들 간에 철학자의 신분 또는 정체성을 두고 크게 두드러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전개된 다툼을 통해 우리는 문학장의 각 영역에서 출판시장의 확대가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독자 수의 급속한 증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기관에 안주했던 전통 철학자들이 갑자기 출판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독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철학자임을 공인받는 일이 학교나 교회에 의해서보다 출판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옮겨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하기 전 출판시장에서 독자는 종속적인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로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몇몇 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미 독자층이 형성되어 문학장에서 일정한 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예를 비롯한 몇몇 전기 작가들이 예전에는 전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철학자 또는 작가를 전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상을 도출해낸 사람들도 왕이나 교황 또는 역사적 인물처럼 위대하다는 생각이 확산했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독자들이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출판시장은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처럼 상업성을 우위에 둘 수밖에 없다. “작가들은 출판시장에서 자신의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에 따라야 했고 독자의 기호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했다.”<sup>67)</sup> 이미 프랑스 독자층은 근저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영웅, 즉 당시로서는 일반 책을 쓰는 범용한 저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선보이는 위대한 작가(écrivain)와 철학자를 기다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시 독자층의 기대지명에 일치하는 위대한 작가 또는 철학자로서 피에르 벨르를 제시했다. 그는 망명지에서 자유로운 사유를 했던 점, 박

66) 로제 샤프티에, 앞의 책, 4장 책이 혁명을 만들었는가?, 109-144쪽 참조.

67) 신중략, 앞의 논문, 8쪽

해의 피해자, 이성적 추리술 등으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선구자로 받아 들였던 만큼 이들의 글을 통해 문해력이 있는 일반인에게 널리 확산되었으리라고 유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벨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철학자/작가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720년경부터 1770년경까지 계몽사상이 절정에 이른 시기를 다룰 다음 글에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출판지가 서울과 파리일 경우 생략했음

- 단턴, 로버트, 『책과 혁명』, 주명철 옮김, 도서출판 길, 2003.
- \_\_\_\_\_, 『문화사 읽기』, 김지혜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 \_\_\_\_\_, 『책의 미래』 성동규 외 옮김, 파주, 교보문고, 2011.
- 랑송 G./튀프로 P., 불문학사(상), 정기수 옮김, 을유문화사, 1997,
- 모르네, 다니엘,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주명철 옮김), 민음사, 1993.
- 부르디외, 피에르 『구별짓기 La distinction -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上 下,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 샤르티에, 로제 외,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 한국출판마케팅연  
 구소, 2006.
- 샤르티에, 로제,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 백인호 옮김, 일월서각, 1999.
- 신종락, 「18세기 독일문학시장의 작가, 출판인 그리고 독자」, 『독일문학』,  
 Vol.112, 2009.
- \_\_\_\_\_, 「18세기 독일출판시장의 형성과 작가, 출판가, 독자의 등장」, 『한국  
 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10-3, 2009.
- 야자르, 폴, 『유럽 의식의 위기 I』, 조한경 옮김, 민음사, 1990.
- 이충훈, 「18세기 프랑스에서 “철학서적”의 제작과 유통의 양상」, 『서강인문  
 논총』 제29집, 2010.
- 이혜령, 「18세기 프랑스 문인연구를 위한 논쟁과 전망」,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논문집』 제37집, 2004.
- 장세룡, 「피에르 벨의 정치사상 : 공화주의자에서 절대왕정 지지자로」, 『역  
 사와 담론』 제51집, 2008.
- 정해수,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작가’의 시기별 개념 변화와 그 의미 -  
 1.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18세기 문학장의 기원」, 『한국프랑스학논  
 집』 제90집, 2015.
- 페브르, 뤼시앵, 마르탱, 앙리 장 공저, 『책의 탄생』, 강주현·배영란 옮김,  
 돌베개, 2014.
- ARMOGATHE J. R., “Les historiens françai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Vol.4 1660-1715, Éditions sociale, 1975.

BAILLET, Adrien, *Vie de Monsieur Descartes*, Horthemels, 1692. 이 작품은 프랑스국립전자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논문투고 전 웹사이트 방문하여 확인했음.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75559n/>

BÉNICHOU, Paul, *Le Sacre de l'écrivain*, Gallimard, 1985.

BORDELON, Laurent, *Théâtre philosophique*, Barbin & Musier, 1692. 이 작품은 프랑스 국립전자 도서관 Gallica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논문 투고 전 웹사이트 방문하여 확인했음.

<http://gallica.bnf.fr/ark:/12148/bpt6k6259484x/>

CHARTIER, Roger, *Pratiques de la lecture*, Rivages, 1985.

DARNTON, Robert, *Bohème littéraire et Révolution. Le monde des livres au XVIIIe siècle*, Gallimard et Le Seuil, 1983.

\_\_\_\_\_, *Pour les Lumières: défense, illustration, méthode*, Presses universitaire de Bordeaux, 2002.

DIDIER, Béatrice, *Le siècle des Lumières*, MA Édition, 1987.

DUCHET, Michèle, “La presse périodique, journaux et gazettes”,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Vol.5 1715-1794, Éditions sociale, 1975.

FOUCAULT, Michel, “Qu'est-ce qu'un auteur?”, *Bulletin de la Société française de Philosophie*, 63e Année. n°3, Juillet-Septembre 1969.

GOLDZINK, Jean, *XVIIIe siècle*, Bordas, 1988.

GOULEMOT, Jean M., *La littérature des Lumières*, Bordas, 1989.

GOULEMOT, Jean M./OSTER, Daniel, *Gens de Lettres*, Minerve, 1992.

HARTMANN, Pierre, *Diderot, la figuration du philosophe*, José Corti, 2003.

\_\_\_\_\_, (Textes réunis par), *Le Philosophe sur les planches L'image du philosophe dans le théâtre des Lumières : 1680-1815*,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2003.

HARTMANN, Pierre & LOTTERIE, Florence, (Textes réunis par) *Le Philosophe dans le roman des Lumières*,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2007.

LAUNAY, Michel et MAILHOS, Georges,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du XVIIIe siècle*, Bordas, 1969 et 1984.

- MONOD, Albert, *De Pascal à Chateaubriand*, Félix Alcan, 1916.
- RIBARD, Dinah, “Philosophe ou écrivain? Problème de délimitation entre histoire littéraire et histoire de la philosophie en France, 1650-1850”, *Annales, Histoire, Sciences Sociales*, 55e année, N. 2. 2000.
- SOLE, Jacques, “Les écrivains en exile”, *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ome 4, Éditions Sociales, 1975.
- VIALA, Alain, *Naissance de l'écrivain.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à l'âge classique*, Les édition de Minuit, 1985.
- WALTER, Éric, “Les auteurs et le champ littéraire”, *Histoire de l'édition française* Vol.2(Dir. CHARTIER Roger), Promodis, 1982.

❖ ABSTRACT

The Concept of Philosopher/Writer and Its Change  
in the Age of Enlightenment : Expansion of the  
Publishing Market and Philosophers, Man of  
Letters and Writers

Chung, Haisoo

This article is a follow-up on the concept of philosopher/writer and its transformation in the Age of Enlightenment - 1.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term 'philosopher/writer' and the origins of 'literary fields' of the Enlightenment era. In this article, we analyzed changes in the literary field in the late 17<sup>th</sup> century after the expansion of the publishing market. We examined the conflict surrounding philosophers' identifying between modern and traditional philosophers. We have validated that the formation of new readers has made traditional philosophers more sensitive to the 'horizon of expectations' of readers. Some biographical works are also one of our concern. By the end of the 17<sup>th</sup> century, philosophers and writers suddenly became objects of biographical works unlike in the past. Through our research, we found that readers have sought the arrival of a new hero, a great philosopher or a great writer, that will lead a new era, and due to this anticipation, it has led to the publication of biographical works. In this process, we have revealed conceptual changes about authors, writers, philosophers, and so on. In the next article, we will continue advanced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philosopher/writer.

Key Words : 17<sup>th</sup> century publishing market, 17<sup>th</sup> century literary fields,  
18<sup>th</sup> century literary fields, 17<sup>th</sup> century man of letters, 18<sup>th</sup>  
century philosopher/writer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

